

민원인·공무원 큰 마찰없이 '순항'

점심시간 휴무제 100일

전국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지역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입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100여일을 맞았다.

지난 5월 단계적으로 시작된 제도 기간과 시행 첫날 복지센터 공무원들조차 주민들의 업무 불편 등을 예상하며 휴무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행 100여일이 지나 다시 찾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초기 우려와 달리 민원인과 마찰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11시30분께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을 30분 앞두고 민원실은 주민등록등본, 재난지원금 신청, 전출입 신고 등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한 주민들과 공무원이 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담당 공무원과 원활하게 업무를 보는 이들과 달리 아직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듯한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민원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어 다시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예상이라도 한 듯 민원인과의 업무를 마친 한 담당자가 주민들을 무인발급기로 안내하면서 민원인 업무 해결에 도움을 줬다.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순 서류 발급이 일상처럼 진행되면서 점심시간 전 모든 민원인 업무가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

점심 직전 인파 몰리기도...무인발급기 역할 특출

"친절한 응대, 한결 높아진 서비스 체감" 이구동성

었다.

이에 대해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김홍식(61) 사무장은 "아직 무인발급기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민원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점심시간 내 방문한 민원인들도 대기 인력의 보조로 업무를 해결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인근 주민들도 무인발급기와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용봉동 주민 윤모(32)씨는 "수당 신청이나 복잡한 민원은 몰라도 간단한 증명서나 서류 발급 등은 무인발급기로 이전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대책없이 무턱대고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시간만큼은 공무원의 휴식 여건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00여일만에 다시 찾은 양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동시장 상인 석모(64)씨는 "(우리

도) 바쁜 와중에 짬 내서 방문하긴 하지만 적절한 휴식 시간도 없이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점심시간이 보장된 덕에 공무원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고 이전보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한결 높아진 서비스가 체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양동행정복지센터 김형근(59) 마을자치팀장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격려해주신 덕에 마찰 없이 점심시간을 보장받아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물론 일의 능률도 함께 상승했다"며 "점심시간에도 급박한 민원인을 위해 상시 인력이 대기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에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소통·응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100여일을 맞았다. 사진은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모습. /안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예보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인천	17/22	서울	16/23	대전	15/25	전주	17/25	광주	18/26	목포	19/26	울산	18/26	제주	22/27
춘천	13/23	강릉	14/24	대구	15/26	부산	18/26	여수	19/25	전라	18/23	경상	16/24	제주	20/26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 건조 좋아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히)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20	목포	08:02	01:20
목포	30-20		21:13	13:16
순천	30-10	여수	03:09	09:09
여수	30-10		16:59	23:40

▶주간날씨

지역	10월 15일	16일	17일
전라(광주)	(18/23)	(16/18)	(5/13)
서울경기(서울)	(16/21)	(13/15)	(2/12)
강원영동(강릉)	(17/20)	(15/19)	(5/13)
충청(대전)	(16/22)	(15/17)	(2/13)
경상(대구)	(16/24)	(17/19)	(4/15)
제주(제주)	(20/26)	(19/20)	(13/16)

▶날씨안내 : 국민안전처

동구,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확대

광주 동구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자 차액 지원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3천만원에 구비 3천만원을 더해 광주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서민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 지난 8월부터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해야 하는 4% 이자에 대한 지원을 4개월에서 1년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사업'은 지난해 각종 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중점 추진과제 분야에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민관협업분야에는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적극행정 분야에는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구축'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국감장서 빛난 '5·18 교육 전국화사업'

윤영덕 의원, 모범사례로 소개...역사교육 교류 공감대 형성

광주교육청의 '5·18 교육 전국화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조명 받으며 더 교육청과의 역사교육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주교육청

에서 실시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를 교육자치의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이 사업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의 전국화를 통해 학교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교육청에서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 학생 대상으로는 체험학습을 각각 운영한다.

특히, 올해 진행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487명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진수 기자

윤영덕 의원은 이날 '민주화운동 교육꾸러미 중 하나인 '전남도청 입체 퍼즐'과 올해 전국에 걸쳐 1만6천원 넘게 배부된 '5·18 민주화운동 인성교과서'를 소개하며 '5·18 교육 전국화 사업은 교육자치 모범사례다'고 치켜세웠다.

윤 의원은 이어 "제주 4·3 항쟁, 대구 2·28 민주운동, 부산·경남의 3·15의거와 부마항쟁 같은 지역의 역사도 광주교육청의 '5·18 전국화사업'처럼 전국에 확산돼 입체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광산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

광주 광산구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

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돼 있는 특정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지난 4월 태양광, 태양열 설치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광주시(5개구) 전체 확보된 사업 예산은 181억원으로, 이 중 약 45억7천만원이 광산구 지역 사업비

로 투입된다. 구는 내년 초 한국에너지공단, 컨소시엄 참여 기업 등과 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신창, 신가, 하남, 비아, 철단1·2동 일원 총 238가구에 태양광 188개소, 태양열 49개소, 연료전지 1개소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훈석 기자

서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효과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서구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가 병원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의료와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서구에 따르면 낙상사고로 하지 기능 장애·고지혈증·육창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휠체어에 의존한 채 13년이나 요양병원 생활을 해 온 A씨가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생활개선 지원, 밀반찬 배달,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받았다. 이에 A씨는 "행복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재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안재영 기자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수목장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12-6183